1번 편지 (토끼)

안녕. 첫 번째 퍼즐은 토끼야. 보자마자 알아챘으려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너 진짜 토끼 닮았어. 전에 말했더니 엄청 질색하던데… 닮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동그랗고 큰 눈이 닮았다니까 죽어도 안 믿더라. 그땐 당황해서 얼버무렸지만 진짜 놀리려고 한 말 아니었어. 정 그렇게 부끄러우면 너도 나랑 닮은 동물이라도 찾아봐.

2번 편지 (비행기)

이번 퍼즐은 비행기 모양이야. 1학년 때 수학여행 갔던 거 기억나? 내가 비행기 타면서 엄청 떠니까 네가 손 잡아줬었잖아. ㅋㅋㅋ 그땐 허세부렸는데… 고백하자면 사실 무서웠던 게 맞아. 부끄럽긴 했어도 같이 앉을 수 있어서 좋았어. 덕분에 네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주 말해주기도 하고, 열심히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모습이 늘 멋있다고 생각해. 보고 있자면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만 해선 영영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오늘은 조금 용기내 보려고. 그럼 다음 편지에서 만나자.

3번 편지 (트리)

이번 퍼즐은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맞아, 교실 뒤 쪽에 다같이 만들었던 거. 알고 있었어? 그거 1학년 교실에 아직 있대. 후배들이 아깝다고 안 치웠나 봐. 뭐, 내가 좀 열심히 꾸미긴 했지. …장식 하나 달 때마다 누구한테 혼나는 바람에. 너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ㅜㅜ 그렇게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은 거긴 하지만… 나는 뭣보다 추억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서 기뻤단 말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인데. 아직 여름이기도 하고, 조금 먼 얘기지만… 너만 괜찮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둘이서 보내고 싶어. …역시 이런 말은 얼굴을 보고 직접 해야 하는 거겠지? 편지는 여기서 끝낼게.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줄인 버전

1.

안녕. 첫 번째 퍼즐은 토끼야. 보자마자 알아챘으려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너 진짜 토끼 닮았어. 전에 말했더니 엄청 질색하던데… 닮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2.

이번 퍼즐은 비행기 모양이야. 1학년 때 수학여행 갔던 거 기억나? 내가 비행기 타면서 엄청 떠니까 네가 손 잡아줬었잖아. ㅋㅋㅋ 그땐 허세부렸는데… 고백하자면 사실 무서웠던 게 맞아. 부끄럽긴 했어도 같이 앉을 수 있어서 좋았어.

3.

이번 퍼즐은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만들었던 트리.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좋았는데, 뭣보다 나는 추억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서 기뻤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야. 아직 여름이기도 하고, 조금 먼 얘기지만… 너만 괜찮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둘이서 보내고 싶어. …역시 이런 말은 얼굴을 보고 직접 해야 하는 거겠지? 편지는 여기서 끝낼게.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